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철학적, 해석학에 반대하여 -

도서관장 박 종 칠 목사

I. 성경 책

* 이 글은 1983년 5월
합동신학교에서 강의한 것임.

(읽을 수 없는 질병)

성경 이해에 있어서 지난날과 지금을 비교할 때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20세기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해석학”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전에는 우리 앞에 놓인 한권의 책(성경)을 놓고 그것을 읽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앞에 놓인 책이 아무리 진리이고 사랑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생각한다. 도대체 “진리” 혹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한권의 책이 화사한 복음으로 놓여 있기도 전에 벌써 “내”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성경과 “나”와는 거리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의 질병이다. 이 병든 현대인에게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하는 문제보다는 “성경이 읽을 수 있는 책이냐?”고 묻는 것이다. 이런 병든 인간에게 여기에 “책”, “성경책”,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고 외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질병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현존하는 책”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은 전에 있어왔던 질병들의 합병증으로 더욱 심화된 것뿐이다.

(난도질된 책으로서의 성경)

19세기까지만해도 성경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책이 한권의 책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개념상으로나, 의도하는 목적에 있어서나 뚜렷이 어떤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19세기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유대민족의 낡은 종교문헌으로, 신약성경을 고대 기독교 종교문헌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런 종교문헌들은 그 작성과정에서 여러 외부사상들의 영향을 받아 기록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이렇게 고대문헌들의 수집으로된 책을 어떻게 한권의 책으로 보고 읽을 가치가 있는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해결을 찾았던 것이다. 여기서 편리상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서 활동한 adolf Harnack의 기독교의 본질(Das Wesen des Christentums)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그는 이 책에서 다투고 있는 주제들을 1889년~1900년에 걸치는 겨울에 베르лин 대학에서 강의 하였다. 이 작품의 중요한 것을 두가지로 정리하면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신학에 나타나는 형이상학 같은 것은 그 본래의 것이 아니라 헬라문명에서 침입해온 순전히 이방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사용한 성경주석 방법문제인데 그는 성경이 말하고 사고하는 방식과 자기가 살고있는 19세기의 사고패턴과는 상당한 차이(gap)가 있음을 보지못한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약성경을 읽을 때 원래 그대로의 뜻으로 읽지 않고 자기가 살고있는 조국독일인들의 불屠杀의 이상과 문화로 읽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읽은 결과 예수는 아주 고상하고 품위있는 인격자로서 인류형제애와 하나님의 부성을 전파하였으니 우리는 그의 인격적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하르낙이 살고있는 그 당시의 빛으로 읽으므로써 된 결과였다고 볼 것이다. 이른바 예수를 현대적으로 각색시키는 위험(peril of modernizing Jesus: 하버드대학 Henry J. Cadbury 교수가 즐겨쓰는 술어이다)에까지 나갔던 것이다.

이는 바울, 마가, 요한을 하르낙시대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여 친근미를 갖도록 한 것은 좋았다고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예수를 변질시키고 만 것이다. 이는 그가 성경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을 한권

의 책으로 보지 않고 여러 조각품(사상들)의 수집이나 집성으로 생각하였던데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성경저자들의 시대적 입장, 바꾸어 말하면 성경의 원래의 뜻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지 못하는데서 온 결과였던 것이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런 주석적 방법에서 기인하여 예수를 덕스러운 선생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교리적 내용을 반박한 19세기의 보수주의 신학자들 역시 변증적 방법으로만 맞서므로써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이런 조직적 신학 개념의 변증이 더 효과적이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역사를 무시하거나, 역사에 좌우되는 진리를 운운하는 입장에서, 역사와 함께 성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와 관계 없는 교의적 알맹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세계 안에 들어온 것이다. 역사와 신학(특히 교의학)을 분리시키는 일은 알맹이만 찾는다고하여 양파껍질을 벗기면서 알맹이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19세기의 일반적인 성경읽는 방법이었으며 또 그 시대 성경읽는 방법의 문제점이었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좀 다른 경향을 띠기는 하나 역시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19세기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 이들도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존적 경험을 알려주는 밀을만한 수집물 정도로 보는 것이다. 여러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경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관적 요소인 신앙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본다. 오늘날 실존적 기독교는 이러한 성경장절들에서 과거 신앙 모습을 더듬어 보려는 시도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신앙경험들의 흔적을 시대에 매여 있던 것을 하나의 책으로 누가 여길 수 있는가하고 반문하고 있다.

여기에서 칼 바르트(Karl Barth)는 그의 초기에서는 이렇게 답변했다. 그의 로마서 주석 초판서언에서 “나의 해석하는 모든 에너지는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있는 성경정신 곧 영원한 정신을 보는데 경주할 것”이라고 했으며(The Romans, London 1957, Oxford University)제2판 서언에서 바르트는 또 “본문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

제는 창조적인 근육의 긴장이나 변증법적 방법의 부단한 탄력성 있는 적용이 아니고는 풀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Ibid. p.8).

그의 변증법적 방법이란 시간과 영원의 부정과 긍정에서 나타나는 긴장인데 본질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인간간의 관계가 나에게는 성경의 주체이며 철학의 본질이다”(Ibid. p.10)라고 기록하고 있다. 칼 바르트 신학이 근거하고 있는 철학적 기초는 “계시와 역사와의 관계를 아주 단절시켜서 계시는 안전한 역사적인 가능성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한다”(박윤선, “칼 바르트의 신학”神學正論1집. 1983. . 20) 그러나 칼 바르트에게서는 선지자나 사도들의 말씀이 “우리로서 취급할 수 있는 상태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행동을 말함이다”(Ibid. p.21).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litera)는 주석가의 생각을 도와주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 자기 앞에 놓인 책은 저 전녀편에 대한 섬광이지 결코 안정되고 고정된 책은 아닌 것이다.

바르트와 비슷한 모습이 볼트만에게서도 나타난다. 볼트만에게 있어서 신약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오로지 인간의 자기 이해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교리, 개념, 혹은 역사 등,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인간자아 이해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볼트만이 가진다해도 어디까지나 초기교회 공동체에만 미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그에 의하면 예수라는 의미에 대한 초기교회가 밀었던 바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볼트만에게 있어서 성경이야기는 인간의 신앙경험을 구체화 시킨 이야기 요소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시대에 얹매인 신앙 경험을 표현한 것을 성경책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곧 볼트만의 입장이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는데는 오늘날 미국 성서공회(The United Bible Societies) 위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성경을 출판할 때 너무 쉽게 가경을 첨부시킨다든지 성경전체의 출판이 아니라 어느부분만 출판하는데서 저들의 입장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성경을, 오늘날과 같이 두꺼운 표지로 된

완성품은 후대 교회사에서 이루어 놓은 것으로 본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처음에는 마가의 두루마리, 누가의 두루마리, 바울의 편지니 하여 Codex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참된 말씀은 오늘날과 같이 완전한 한권의 책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었다. 날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전서라는 개념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성경을 완전한 책으로서의 경전이 아니라 수세기를 거쳐 후대 교회사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문학작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럼 정경이란 후대에 와서 부가된 가치인가?)

위에 말한 자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며, 20세기의 바르트, 불트만이나 오늘의 미국 성서공의회가 책이 잘못된 것이니 성경을 한권의 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설교단에서 성경을 놓고 설교하는 무리들은 어디 성경책을 하나님이 의도하신대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이란 후대 교회의 결정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공의회란 것이 영감된 모임도 아니고 또 공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순전히 인위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들하고 있다. 교회가 수집하고 편집하고 제본한 것을 한권의 책으로 간주한다든지 또한 이런 또한 이런 책에서 주석을 한다는 것이나 부분의 뜻을 쫓는다고 전체 문맥에서 살피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간단히 살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잘못된 판단임에 틀림없다. 가경이 포함되지 않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이미 불문율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정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이점에서는 4장 “구약은 얼마나 오래되었나?”를 참조하라)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사람들이 397년 칼타고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확정되었다고 읽고 있는데, 이 공의회 결정사항들 중 특히 성경책을 다루고 있는 47조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하고 있는데 정경들 외에 교회안에서는 “하나님의 기록들”이란 이름으

로 읽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이 공의회는 정경을 확정한 것 이 아니라 예배시간의 성경봉독때 비정경적인 책을 읽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 다음에 정경 기록들의 목록이 뒤따라 기록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의회가 정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전대의 것을 정확히 한계지우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또 이 공의회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목록은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목록을 첨부시켜 놓은 것 뿐이다. 이미 수세기 전에 정경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단자 말시온(Marcion)이 2세기 중엽에 자신의 성경편집을 할 때에 성경의 — 여러 부분을 삭제하였다 — 많은 반대가 일어났는데 그 반대가, 말시온이 또 다른 정경을 만들었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잘라내고” 결단했다는데 있었던 것이다. 성경을 잘라내었던 그것으로 인해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2세기 초엽에도 정경은 이미 존재하였다. 한가지는 어떤 지역의 교회들에서든 어느 정경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있어왔던 것은 그 당시 기록들의 분배가 제한되어 있었던 탓이었다. 그러나 1세기 말엽에 한 공의회가 책을 선체하여 수집하였겠다는 시기를 말해주는 것은 없다. 교회는 이 명백한 기록들을 알려진 가치와 일반성 때문에 보존하여 왔던 것이다.

성경책들은 아주 내부적 연결을 나타내어 하나의 뚜렷한 통일성을 보여준다. 이 통일성은 한 저자가 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성경이 여러 기록물이긴 하나 같은 손에서 나온 것들이다. 구약성경에는 자주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공식적인 말씀이 벳세지 전달 서두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공식은 벳세지 전달자가 오늘날 테렉스 전달에서와 같이 아주 여자적(如字的)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벳세지가 여호와의 이름에 연결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전달된 계시가 표준이 되고 여기서 나머지 말씀들이 판단되어진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서들에서 하나의 통일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정경을(당시에는 구약을 말함) “기록들”이라고 말하는데 “기록들”이나 “기록”(벧후 1:20)이 서로 교체되어 사용되어 지는데 이러한 기록들이 하나의 권위있는 원천으로 인용되었던 것이다. 가경이 들어오게 된 것은 헬라 번역성경인

70인역(LXX)에서 시작되어 기독교 성경안에 들어왔으나 뉴 22:44에는 예수님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분량이 분명히 명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들”이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가경을 포함하지 않는 히브리 성경(율법서, 선지서, 성문서)의 정경을 지시하는 전문적인 용어인 것이다.

베드로는 “기록들”이라는 말에 바울서신들까지 포함하고 있어(벧후 3:15-16) 이 서신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확정된 부분에 속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두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여졌다는 (그 받은 지혜대로)말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배고 푸는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였다. 신약의 대부분이 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고 오직 한 성경만이 사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예수의 오랜 제자 중에서나 아니면 사도들의 가까운 무리에서 혹 어떤 이가 썼다고 본다.

저자의 통일성, 원천의 통일성에서 그 내용의 통일성이 명백해진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중거하니(요 5:39) 그 목적에 통일성이 있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딤후 3:16-17)고 했다. 이 성경의 목적의 통일성을 바울은 16절 초두에 저자의 통일성에 근거한다는 뜻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한 책으로 간주하는 것일진대 이책의 다른 부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이 명백해 질 것이다. 이 문학작품의 통일성이 간지되어 그 내적 연관성이 들어나면 책을 하나로 묶어 출판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널리 퍼져 나갔으나 서로 매인 부분들의 통일된 내용을 갖고 나아갔다. 이러한 성경이 읽을 책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교회 공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음이 자명한 사실이다.

(한 저자의 목적)

이처럼 성경이 한권의 책일진대 우리는 이 책을 “한권의 책”으로 읽어야 할 것이며, 한 저자의 분명한 의도를 찾아 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울은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롬 15:4)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후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온전히 알기위해 열심히 상고하였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벧전 1:9-12). 이를 보건대 성경의 목적은 상호관련성 속에서 전체 계시와의 관계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이사야의 고난의 종 예언을 신약성경을 참조하지 않고 읽는다는 것은 마치 소설의 제1장을 마지막 결론없이 읽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책이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절구절을 따로 떼어 해석하다는지 본문을 난도질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베드로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것인 만큼 “사사로이 풀 것” 아니라고 했다(벧후 1:20-21). 여기서 사사로이 풀다는 말에 강조점이었는데 그 뜻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전체와 분리시켜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 책을 읽되 한 문자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뜻)을 찾고 그 저자의 구절들을 분리시키지 말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그 책 성경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책과 더불어 시작해야만 한다.

2. 읽을 수 있다.

(읽는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되어지는 바인가?”)

성경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읽는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에서는 성경 계시에 대해 철학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조우(遭遇)해 온 것이었는데 이것이 인식론이다. 데카르트(Descartes)로부터 시작하여 칸트(Kant)를 거쳐 오늘날 훈설(Husserl)의 현상학파들이 대들보처럼 거론하는 것이 해석학의 문제이다. 이들에게 해석학이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느냐?”하는 철학의 문제이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일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읽음으로서

도 큰 역할이 있겠지만 인간의 이해란 그 자체 조건이며, 기대이며, 한 계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고, 과거에 무슨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가치판이 무엇인가 하는 이 모든 개인역사와 일반역사가 반드시 본문을 대하고 있는 해석자의 방법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해석자 스스로가 결국 이해과정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서는 그것이 의미없는 객관세계가 되어버린 이상 이해하려고 하는 “존재자” 자신의 밖에 “의미”라는 것이 있겠느냐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학은 옛날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형식과 의미를 갖고 나타나는 것이다.

문학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과 문제성을 갖고 나타난다. 본문해석이란 결국 본문이라는 자막을 통하여 자아를 투영시키는 일이며 본문을 통하여 해석하는 일이다. 주석이란 해석을 한 역사를 살피는 것이다. 본문은 연못속에 던진 돌과 같은 것으로 여기서 넓은 파장을 그려 나가는 것이다. 읽는다는 것은 결국 말하는 것인데 잘 알려진 바르트의 말을 빌리면 “본문안에서 오로지 독자가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철학과 문학 사조가 신학에도 유입되었다. 이른바 신해석학 (New Hermeneutics)이 신학 영역에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앞서 생각했지만 “다른 해석학”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이 신해석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고대 근동지방의 한문서에 불과하며 성경의 본문이 고고학적 본문정도의 의미는 갖겠지만 그 의미는 죽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본문이 되살아 나야만 된다고 한다. Fuchs의 말을 빌리면 잡자는 고양이는 곧 쥐를 움켜잡는 고양이가 되어진다. 즉 본문앞에서 실존을 던지라고 한다. 이때에 에벨링 (Ebeling)이 부르기 좋아하는 “말씀사건” (Wortgeschehen)이라는 것, Fuchs가 말하는 “언어사건” (Sprachereignis)이 일어난다. 이렇게 현대인과 죽은 본문과 만날 때 새로운 전류, 스파크가 솟아나며 생기가 솟구쳐 난다고 한다. Fuchs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장하기를 성경의 역사적 본문의 원 의도와는 상축하더라도 현대적 해석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본문을 사람이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갖고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읽어가고 있는 것이다.

(Do tekst wordt rist meer gelezen, majar belezen)

(우리가 읽음이 진리 전제의식에 의해 지배받는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비추어볼 때 실제 개념 혹은 진리개념이 새로 운 각도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즉 형이상학적 개념 같은 것은 논증할 수 없는 일이며 비역사적인 것으로 팽개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장의 손에 뒹는 이야기를 할 일이지 하늘의 일을 갖고 월가월부할 일은 못된다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있는 인간의 개념으로 막을 치므로 그것이 본문을 읽을 때 결정적으로 그 본문을 지배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형이상학 같은 것을 팽개치는 일에는 자연신론이 크게 공헌하였다. 이 자연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관계없는 것으로 분리시키고는 하나님은 오로지 세상을 자기의 진로대로 가도록 만든자이고 세상은 그대로 가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19세기에 와서도 이렇게 형이상학과 분리된채 세상의 내적 발전 경로와 그 역사에 대해 크게 생각하게 되었다. 여전대 생물학의 진화론이 크게 명성을 떨친 것이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가도록 해놓은 세계는 그 자체 발전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와서는 이런 역사관을 실재론에 연결시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니 하는 것은 이것을 모든 시대에 주장할 수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니고 결코 존재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한다. 진리로 언제나 인간과 함께 자라가고 있다고 한다. 인간이 그 진리이며 실재라고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진리라고 할 때는 역사적인 것으로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다.

사상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신자들이 성경 본문을 갖고 아직도 영원한 진리가 있으며 연구적인 계명이 있다고 읽을 때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진리일진대 누가 정면으로 부인할 것인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는 영원한 진리이며 항구적인 설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 역시 동일한 권리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확정된 진리란 어떤 의미에서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불신의 소리들이 역사적 사상의 흐름의 추세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신자들에게 들려질 때 신자들은 성령에 없는 것을 읽는 것 같으며 또 읽으므로 오히려 꿈꾸는 것 같으며 우리의 불확실성을 고대의 한 문서책에다 투영시키는 일 같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마치

물에 빠진 파선자가 파산된 나무조각을 붙잡으려는 현상과 같게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면 존재하는 것 (Das Seirende) 곧 객관 세계에서 의미를 잃고 존재자체 (Das Sein) 를 질문하지만 말하자면 볼트만의 복음에 대한 자기 실존적 해석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Seiu und Zeit) 에서 왔다고 하면, 에벨링과 흑스는 후기 하이데거의 작품인 “언어에로의 길” (Unterwegs zur sprachs) 에서 연유된 것이지 후자에서는 해석학은 본문을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멧세지나 지식을 날라주는 것” (das Bringende Von Botschaft und Kunde) 으로 보고 언어자체가 이 멏세지를 전달해 주는 자로 본다. “언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The language speaks) 이것마저 권위있는 의미 (authentic meaning) 를 주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일진대 그 무엇인가 스파크해 주는 “언어” (language) 가 필요한 것이다. 희랍신화에 보면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맞은편 큰 바위에서 sivenen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요정들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게 되는데 항해자들은 그 멜로디에 취해 바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그만 파선하여 모두 죽고마는 이야기가 있다. 오늘날 성경의 진리들을 이른바 듣기 좋은 철학사상으로 인해 파선된 나무조각처럼 만들어 놓고 번번히 잘아 앓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전에 sivenen 요정들로부터 유혹하는 소리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가지의 유의할 점>

이런 현대의 철학적 사고가 빛어지는 형편에서 볼 때 유혹자들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지 않도록 귀에다 멀초를 막는 Odysseus의 태도, 이미 멀초가 태양열에 녹으면 요정의 소리보다 더 크게 사공들이 군가를 크게 불러 그 소리들을 짓누르는 걸이 더욱 현명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야 할 점들을 들어본다.

1. 모든 진리가 시대에 매여있다는 주장은 스스로를 자멸하는 행위이다. 이 주장 역시 시대에 얹매여 있음이 드러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아니면 이 주장이 영원한 진리인가? 가 판명날 것이다.

2. 역사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서로의 딜레마를 만드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영원은 항속적인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역사 밖에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를 수요일이라고 한다) 금요일 정오에 정사(釘死) 한 것과 같이 역사세계에서 나타나셨다.

3. 항구적이고 확고한 진리 혹은 실재 운운하는 것은 헬라사상이며 플라톤적인 발상이다. 플라톤은 영원과 역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끔 거짓 포장지를 만들어 “육체와 영혼” 아니 “시간과 영원” 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구분을 행하고 있는데 이는 철폐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4. 성경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과 성경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로 확고한 사상과 의미를 갖고있는 책인데 오늘날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 그 의미에 대한 주관적 가치있는 판단은 될지 모르나 그것이 해석학적 출발점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무엇이라 말해도 성경은 의미를 갖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성경이 많은 사람에게 책으로서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의미에 대해 비평을 하려고 주석하는 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보아진다. 이들의 주석은 성경을 여러 장래로 잘기 잘기 짚어놓았다. 그리고 짚어놓은 그 시체를 보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손이 닿지 않는다면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등의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그들의 그간의 행동이 이루어놓은 자연스런 결론으로 그들의 자가당착일뿐 그 이상은 아닌 것이다.

6.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타락한 우리 세상에 은혜로 임하고 있는데 반해 인생은 손에 닿는 그런 역사적 진리만이 진리라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이성안에 가두어두는 안일에 빠져서는 안된다. 세계사에서 아주 위급한 순간에 이런 선입견적 입장은 제한된 인간으로서 절대자 이신 하나님께 너무 방자한 일이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기 이전에 중차대한 순간에 봉착하였던 것이다. 스토익 철학자들과 회의주의 학자들이 모였던 그 회장에서 이 지성인 정치가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두고서도 안일한 질문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

요 19:37-38) 고 물었던 것이다. 이 정치가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틀림없지만 그리스도는 대답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빌라도는 의를, 진리를 택했어야만 했는 데도 진리 앞에서 안일하게 이성작용을 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왔다”는 주장에 빌라도는 먼저 자신의 인격적인 응답이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그는 이성적인 선입견적 질문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물러나고 말았던 것이다. 빌라도에게서 보는 것처럼 이런 선입견적 질문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잡지 않고 “나를 잡아 주겠소” “나를 잡아줄 능력이 있소”라고 질문하는 행위는 오만한 태도인 것이다.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에는 진리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진리와 실재”가 긴급성을 갖고 대단히 진지하게 현존하고 있는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철학화하는 안일주의는 피해야만 한다. 진리의 긴급한 요구에 인생은 응답할 것이지 결코 제한된 이성으로 반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석학은 마술적인 복방망이가 아니라 하나의 안경이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며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해석학은 신해석학에서 말하듯이 죽은 자를 움직이게하는 마술적인 복방망이가 아니라 하나의 안경이다.

여기서 안경이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다 선명히 보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은 거기 현존하는 의미를 알며 바로 평가하는데 도와주는데 그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보통의 태도로 이 책을 읽으므로 영원한 가치까지도 포함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철학서적, 문학서적, 신학서적을 살 것인가? 책을 읽으므로 본문의 뜻이 보다 명백해지고 우리의 기대하였던 것이 보다 분명히 들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미한바가 교정되어지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영원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문을 읽음으로서

나온 결론이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갑자기 고양이 앞의 쥐처럼 경직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플라톤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아멘시의 한 점포의 하찮은 세금표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호라티우스(Horatius)의 시를 읽을 때에는 그 시가 아름답다는 미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봄 때에는 왜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겠는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종교에 대한 진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진리가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는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우리가 읽으므로 기대하는 것은 주어진 대상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면에 주어진 탐구대상과는 관계없는 전제의식에서 모든 비정상적인 강압에 의해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석학을 안경으로 비유할 때 분명히 밝혀지는 바는 의미에 대한 표준은 본문 자체 안에 있는 것이지 독자나 안경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안경의 타당성은 주석의 결과에 의해 평가되는 일이다. 눈이 나빠 안과 의사에게 오는 것은 먼저 벽의 글씨를 읽을 수 있는지 물고, 그 다음에 맞는 안경을 골라서 글을 알아보게 둔다.

안경이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석학이 어떤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석학은 언제나 대상에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학은 읽을만한 본문, 의미가 담긴 본문의 토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분명히 아니다.

〈읽을 규칙〉

성경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할 때 읽을 규칙을 찾음에 있어서 어떤 무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신학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읽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읽을 규칙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칙들이 읽는 자를 좌우하는 것이다. 물론 교파나 여호와의 증인 등 여러 이단들은 결론을 먼저 세워놓고 성경을 읽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조와 규칙에 따라 매 성경귀절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언어란 재래

의 표시체계로서 문법적 양식으로 구성되어있는 규칙체계로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점이 있는데 형식으로 더욱 명백해지려면 의미론적 자료들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문법의 한계성이라 볼 수 있다. 성경주석에는 한 본문의 언어적 구조를 모두 알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암어, 헬라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언어들이 거룩하고 특별한 언어들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성경적 본문이란 언어와는 달리 인습적이 아니고 본문을 만들어낸 체계에 매여있지 않는 것이다.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유로이 소리를 내지 못해도 본문적으로 볼 때에는 원하는 것 만큼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한다. 본문을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어진 본문 자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일반적 평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본문의 의도된 의미를 이해하는 표준은 본문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다. 본문 자체에서 부문에 의해 전체의 항구적인 의미가 나타나고 또한 전체에 의해서 부분의 뜻이 명확히 나타난다. 이런 상호긴장관계에서 의미나 목적한 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Ἐλπίνω*이 문법적으로는 단순과거 일인칭단수 혹은, 3인칭 복수로서 문법적으로는 어느 둘 중 하나로 해독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읽을지는 현장문맥에서 볼 때 알게되는 것으로,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좀 넓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현대적 사회적 입장이나 처지에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 문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 현장 본문이 다른 어느 문맥보다도 우선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규칙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문장 안에 있는 요소와 그 다음에 문맥 안에 있는 요소를 그다음 그 본문이 기록된 세계로부터의 요소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말하게 될 것이다.

본문을 이해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큰 신비로 날아 있다. 칸트의 오성작용론도, Hepp의 언어사건도 아니다. 이해는 개념이 이미 있는 곳에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섬광적으로 모호한 개념을 받고 그 다음 본문과 대면하므로 재빨리 생각이 일어나고 전체와 연관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

해석학에는 다음 일곱가지 법칙이 있다. 누가 말하며, 왜 말하며, 누

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말하는가이다. (*Quis scopus impenens sedes tempusque locusque et modus : haec septem scripturae attendito lector*)

그러나 처음부터 어느 자물통에 어느 열쇠인지는 모른다. 어떤 경우는 누가 말하는지가 전혀 의미가 없고 어떤 경우는 열심히 의미를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누가 말하는지는 명백하지만 그것이 중심열쇠로 보아지지는 아니한다. 해석학에서 종종 주석적 결론이 먼저 내려지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

예컨대, A. Berkeley Mickeken이 “Interpreting the Bible”에서 말하는 ‘Style Doctrine’에 비추어 비사(*metaphore*)를 살펴 볼려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비사는 내가 본문을 이미 파악할 때 알려지는 것이다. 예컨대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낼 때 이리 가운데 양같다고 할 때 이 경우에 이리는 비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내가 가령 네로 시대에 신자들이 사자 가운데 양 같이 보내졌다고 할 때 이때 사자는 비사가 아니고 사실인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내용을 알고서 그 다음에 비사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비유해석에 비유, 비사, 알레고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정의하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왕국의 내용을 알 때 그 비유성격이 더 드러나지는 것이다. 문체형식에 관계되는 한창세기 1장은 6일 동안에 창조했다는 사실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런 모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무 여자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N. Ridderbos 같은 이가 말하는 이야기격식(*Kaderver Aeliegen*)인데 이 창세기 1장이 그런 것이라고 주석의 결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미리부터 본문을 대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 패턴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이런 격식은 사실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미리 그려한 격식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본문 전체에 비추어 동심원적으로 읽기〉

본문 강의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언제나 작품 전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러한 한계 안에서 본문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소나타는 소나타 격식이 있고 발라드면 발라드, 시조면 시조의 기둥이 있어 그 전체성에서 파악되어지는 것이다. 수세기를 걸쳐 내려온 탈무드경은 그 탈무드학파가 형성해온 교리 전통이라는 전체맥락에서 개인 학파의 한계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전체 한계에서 읽는다고해서 전체 안에서도 새로운 국면의 차이점들에 대해 소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전체의 맥에서 자동적으로 마구 읽는다고 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광야로 안식없이 내쫓기 더러운 귀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거닐었다는 이 두 요소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해서 같이 봐서는 안된다. 이 광야란 말이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이란 아주 제한된 의미와 달리 어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야이로의 12 살된 어린 딸과 흑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와 관련을 지우는데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읽는 방법은 최소한의 주석적 통일성(시편, 잠언, 이야기, 서신들의 주제)에서부터 근접한 문맥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성경 전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귀절은 자명한 한 문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다음 가까운 문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 말은 불경건한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며 자기 오해에 불과한 말인 것이다. 마리아 대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천사가 말하기를 “여자들 가운데서 복 받은 자”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문맥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과 같이 마리아의 교회 안에서 탁월한 위치나 신분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볼 때 이 마리아론은 결코 받아질 수 없는 것이다. 마리아는 처음에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천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도행전에 그녀가 존경되고 있으나 교회적 신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녀의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했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만이 축복스럽게 전파되었을 뿐이었다. 결국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를 송상하는 카톨릭적인 해설의 가능성이 전 성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말은 문맥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칭의에 대한 말로서 더 이상 적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바울서신의 다른 부

분들은 분명히 남여의 상호 위치나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에 대해 명백히 하고 있다. 요컨대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던가,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위치나 교회 안에서 비중성을 말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에스더서를 유대나라 민족의 책으로 혹은 부림절의 기원에 관한 설화로 보는 것이다. 이와같은 해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미워한 하만은 아말렉 족속에서 나온 악인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각할 점이 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항하는 영원한 투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때 가나안 입성을 방해한 원수였다. 단순한 민족인 원수이기보다는 모세의 손이 오르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리면 지는 그와같은 사건의 경험을 가진 백성이었다.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의 전멸령에도 불구하고 아각등을 남겨두므로 써 훗날 큰 화근이 되었으며 다윗의 원정 때에는 뒤로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살랐다. 또한 사울의 죽임을 다윗에게 알린자도 아말렉 소년이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을 볼 때 에스더서는 단순히 유대인의 책이 아니라 교회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항한 책인 것이다. 결국 이 에스더서를 읽는 관점도 역시 성경 전체에서 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지는 나보다도 크심이다”고 할 때 이러한 표현은 교회사의 기독론과 상충되는 부당한 말이 아닌가라고 하겠다. 요한복음 전체를 봐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8절이 양자간의 형이상학적 본질적 차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님이 곧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 문맥은 다른 각도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데 이 순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간다는 고별사에 대단한 우울증에 잠겨 있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걱정이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는 낫아져서 죽음이 가까우므로 아버지는 영광스러우며 자기보다 크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죽게 될 인간보다는 더 큰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은 어떤 형이상학적 의미의 공식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예들에서 볼 때 한 본문을 이해하려 할 때 동심원을 중심해서 최소한의 가까운, 그것다음 원에서 더 넓은 원으로 움

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니 그 한계는 책 전체인 것이다.

<해석학은 거룩한가?>

성경에는 성경에만 적용하는 특별한 해석학이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특별한 읽을 규칙이 적용되는 “거룩한 해석학”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Grijdonus나 다른 이들은 성경에 일반적 해석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여겼으나 성경에는 특별하고 거룩한 해석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인식하는데는 특별하고 거룩한 규칙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 규칙은 성경에서 유추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특별한 해석학이라는 이름에서 다음과 같이 읽을 규칙이 요청되는 것인데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한다” “시대구분에 차이점들을 감안하라” 등이 곧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의 타당성이 논란될 필요는 없지만 과연 특별히 거룩한 해석학이 있는지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 사실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규칙들이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다. 위대한 문학일진대 부분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통일성이 있고 또한 서술한 시대에 따라 그 부분을 그렇게 읽어야 할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을 하나의 통일성으로 받는 것은 한 책이 그 자체의 성향에 따라 읽어져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한데 지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반규칙, 관계된 규칙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경의 경우에는 특별한 함축성을 갖고 있는데 있다. 즉 한 하나님에 존재하며 성령에 의해 오랜 기간을 걸쳐 성경 여러 부분들을 기록하도록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함축성은 바르트의 교의 신학에서의 통일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일개 개인에게서도 이런 방대한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척도에 따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책으로서 읽을 때에는 우리가 전제적으로 받아야할 사실은 하나님은 존재하며 그가 말씀하고 그가 영감시켰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은 인간의 척도로서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라야 불신자들도 역시 이러한 전제를 할 수 있고

참된 가정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현실은 하나님, 그의 존재나 말씀에 대항하는 인간의 노골적인 반항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죄스러운 의지가 성경의 읽음과 그 이해에 파격적인 쇠망치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정상적인 안경을 제거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미리부터 성경책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기에 읽을 규칙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책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해석학”이라기보다는 “거룩한 기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해석자의 믿음과 중생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구별지워야하는 것이 있다. 성경의 자증(自證)을 받는 것과 이 성경의 전체 신앙내용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성경의 자증을 받는다는 것은 중생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문학작품 대상에 대한 선협적인 판단없는 평가에서 오는 것으로 믿음없지도 이러한 것을 받을 때 작용가설(作用假說)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그리스도 내용을 받는다는 것은 전자와는 다른 것이다. 중생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앞에 갈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성경은 중생에 대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구별들>

위에서 말한 구분들을 정확히 하기 위해 오늘날 개혁주의 해석학이나 교의학에서 구별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자 한다.

1) 많은 사람들이 “제일저자”(autor primarius)와 “제2저자”(autor secundarius)의 구분을 지우는데 인간 성경저자들이 제일 저자인 하나님의 저자 아래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의 불리한 점은 “저자”(autor)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신적요소와 인적요소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훗날 토론의 여지를 터놓았다는 점이다. 마치 두번째의 인간적 요소들이 별도의 어떤 것이야 되어져서 사람이 어떤 저작상의 의미를 가지는 뜻으로 되어 버렸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 저자들이라는 말을 써서 본문을 더욱 좋게 다듬어지게 했다는 의미를 하는데 이는 전혀 제이저자들의 뜻이 아니다. 오직 성경은 한 저자일 뿐인데 곧 하

나님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로잡아 성령에 감동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저 작가로 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들이 오늘날 카셋트 테이프가 내는 소리처럼 기계적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기계적 영감설”을 부인한다고해서 이른바 “유기적 영감설”로 나가는 것도 아니다. 후자에 있어서는 인간의 성경저자가 하나님 옆에 있는 한 요소로 간주하기 쉽다. 물론 언어학적으로나 문체상으로나 그 시대에 표현들이나 간용구들로 보아 하나님은 성경저자들을 “비인간화”하지 아니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저들의 말씀이 맞아떨어지는지를 연구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문의 의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자와 인간의 봉사자(dienenaars)와 구분을 지을 수 있겠다.

2) 또 하나의 구분은 역사적 권위(*autoritas historiae*)와 도덕적 권위(*autoritus hormae*)와 구분지운다. 성경의 모든 것이 같은 권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가졌다는 사실은 후대에 따라야 할 계명이나 오본이 아니다. 그러나 “도적질 하지 말라”는 법은 단순히 시내광야에서 선포된 말 그 이상의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지는 명령이다. 많은 사람이 신학의 수련도 없이 이렇게 성경을 구분지우는 것이다. 성경의 본문의 통일성보다 성경귀절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성경주석에 성령 어느 부분이 어느 목적을 가지니 거기에 제한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읽을 부분이 정보적이니 감동적이니 서술적이니 하니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성경을 읽는데 오히려 불필요하다. 어디 성경이 역사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만 가지고 있단 말인가?

3) 다 “믿음의 유추”(*aulogia fidei*)에 대해서 많이 들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에서 나온 말이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이 말이 믿음의 능력을 두고 하는 말인데, 조직신학에서는 이 표현이 믿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석은 믿음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의미가 “성경과의 유추” “믿음과의 유추” “교의와의 유추”라는 말들로 표현되고 있다. 가 이 3구분을 생각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번

째 구분 곧 “믿음과의 유추”를 택하고 있다. 신앙의 내용과 교의와는 엄밀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성령유추”라는 말에도 별로 어렵지 않는 것은 성경이 한 책이며 각 부분은 전체와 관련해서 설명되어져야만 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의 유추”라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같은 말로 성경내용이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다. “믿음의 유추”라 할 때에는 “성경유추”라는 말에 분석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반해 더욱 종합적 접근이라 하겠다. 그리고 “믿음의 유추”라는 말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신앙고백, 신조에 관련되어 있다면 “교의적 유추”와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석이 신앙고백 곧 교회의 교의 안에 매몰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규칙인가? 이것은 곧 인간적인 공식들 즉 본문밖에 있는 실재를 성경강의 내용에 복잡스럽게 한계지워 놓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한가지 사실은 신앙고백은 오로지 성경의 빛만 나타내고 성경과 더불어 머물기 원한다면 성경은 역시 신앙고백과 더불어 머물려 있어야만 한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과 신앙고백 양자간에 충돌이 있을 때에 성경이 절대적 우선권을 가지며 신앙고백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교의와의 유추규칙(혹은 믿음과의 유추)이 파생적인 권위를 가진 규칙이지만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성경유추에 대해 효능성(*heicl*)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유추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세기를 거쳐 교회는 기도하면서 투쟁해 온 것은 성경을 읽고 그 묘의를 한 고백에다 모아 보려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독자를 위해 좋은 출발점이며 *controlling*하는 점이다. 고백서들을 읽는 것은 무슨 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더 좋게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짧은 개요로 되어있는 논증을 읽어보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읽어야 한다.

IV. 읽는데 장님되게 하는 것들

지금까지 우리는 주석에 있어서 그 대상(성경책), 그 성격(읽을 수 있는 책), 그 조건(규칙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는 현대철학 사상들로 인해 주석에 있어서 방해되게 하며, 소경이 되게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성경이 시대성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해석학적 전제로 삼는 점>

오늘날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하므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경이 이론 시대의 소산물로 보는데, 후대 사람들이 반추한 것, 곧 초기 교종들의 믿음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분명히 거의 매장마다 성경 저자의 시대를 넘어 파악하고 그 의미가 시대의 종말에 대한 것이 많은데 왜 이 항구적인 의미를 읽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에 부당하고도 잘못된 전제를 갖고 읽기 때문인데 이론 시대의 본문들은 무조건 시대적 제한을 받았다는 평가 절하를 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주장이 병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플라토(plato)를 읽어도, 공자나 칼 막스의 책을 읽는다 해도 그런 주장은 올바른 것이 못된다. 우리가 읽을 때 아주 정상적인 방법은 그 본문이 그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전전한 방법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만 제한된 속회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오히려 많은 말씀과 행위를 그가 하셨는데 그것들은 일반적이며 항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불신자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본문의 내용에 대한 자기 판단을 성경 읽는데 대한 해석학적 전제로 삼는다는 것은 별든 현상인 것이다.

성경이 그 생긴 시대적 상황에 제한받고 있음을 사실이다. 성경에 사용된 언어만 하더라도 그 시대의 언어이다. 또 성경의 내용도 그 시대의 사회생활이며 고대역사나 종교와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성경이 시대성이 없는 책은 아니며 묘사적 상징적 언어와 관계 없는 책은 아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이는 보조학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성경의 언어와 그 시대를 알 때 성경 본문의 밀바닥을 다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고고학, 언어학, 지리학과 문화사가 성경 본문의 뜻을 열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 당시 영상을 다시 예리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

이 없이는 그 영상이 흐릿하여 오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조 학문의 빛을 사용하지 않아서 의미를 짚게되면 그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보조학문은 성경을 “전대의 소산물”로 여겨 죽었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없고 그 시대에 말하여진바대로 본문을 잘 영상시키는데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하나 더 말할 것이 있는데 성경의 한 본문은 특별한 그 시대에 나왔을뿐만 아니라 그 자체 역사적 문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계속되는 계시 역사에서 말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계시역사(historia revelatisuis)가 그 성경본문에 대해 가장 밀접한 역사적 컨텍스트인 것이다. 독일 역사의 사건들은 유럽 역사의 배경에서 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독일 민족 안에서 보아져야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 역시 확실히 그 시대의 맥락에서 보아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하나님 계시역사의 맥락에서 보아져야만 한다.

예컨대 구약 성경은 간음에 대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웃 이방나라들에서는 이 간음이 어떻게 처벌되었는지를 볼 때 이스라엘의 간음에 대한 징벌이 가혹했거나 느슨했던 것 중에 하나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징벌의 필요성은 이미 낙원 세계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속시켜 놓은 창세기 그 당시의 말씀이 간음에 대한 징벌을 원천적으로 정의해 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끌애굽 시킴으로 한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계시 형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백성을 소유로 구분 지우므로, 간음하면 마땅히 징벌로 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신약의 교회에서는 간음자에 대한 율법서적인 가르침과 법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의 징벌 계명이 과거 시대에만 적용되어 그 시대에만 적용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 신약시대의 하나님 계시의 진전은, 국가적으로 모였던 구약교회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서 나와 모여진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신약시대에 교회는 이 이상 사법적 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행했던 것 곧 징벌에 대한 항구적인 의미는 계속 남아있다. 간음자가 낙원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인 것이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간음자, 살인자, 우

상승배자는 성 밖에 있다고 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많은 예 중에서 하나님 계시 역사에서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예는 바울이 말한바 노예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도가 노예더러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관계에 대한 말 역시 시대에 매여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창조와 타락 역사에 관계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 노예에 대한 계명에서는 노예제도의 합병성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 당시의 입장을 밝혀주는 계명들이 있는데 바울은 구약이 노예제도를 금하고 있으며 바울의 자기시대에 기준하는 노예제도에 대하여는 착취를 금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빌레몬서가 밝혀주는 것은 신자는 노예를 해방시켜서 형제의 관계를 갖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노예에 대해 어떤 말이 있으면 그 것은 노예를 가지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바울이 개인 노예제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그 시대적인 말이 그 시대를 벗어나서 자유하라고 한 말이 아니다. 사도가 노예들에게 명한 것은 동등하게 되었으니 복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지상의 관계를 볼 때 새로운 별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뜻이다. 안식일 계명도 일곱째 날 쉬라는 계명은 제의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내려가서 무덤에서 쉬시고 일곱째 날에는 완전해졌다. 여기 항구적인 의미는 주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친양하는 날로 구별되었다. 사람과 짐승에게 쉬는 날의 의미가 부활절로 인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날자는 변경되었지만 근본적인 사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주일날은 별로 쉬는 날로 성스럽게 여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날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에게 쉬는 날로 부상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 안식일은 쉬는 날로 구약적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날 쉬라는 계명은 계시적 역사적으로 시대에 제한은 받지만 시대에 매여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주석가는 본문의 어떤 부분이 시대에 제한은 받지만 어떤 요소가 일반적 항구적 의미를 가지는지 확정해야 한다. 성경의 모든 것이 시대에 매여 있다고 전제적으로 믿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소경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본문 밖에 자료들을 해석학적 예비조건으로 읽는 것〉

성경을 읽은 자에게 두번째 병폐는 현대의 세계관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태양을 창조했다는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는 이론을 가르치는 시대와는 확실히 오래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경은 타오르는 태양에 의해 과학적 양식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찰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말하면서 태양이 석양에 진다고 하는 식의 정신분열을 일으킬 그런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고대로부터 나름대로의 세상 모델을 오늘의 태양 주위로 도는 지구 모델과 비슷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설 어느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170의 보통 인간의 관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현대과학이 발견한 것과 많이 상충하지 않는가? 어떤 의미에서 현대 세계관이 성경의 의미 가능성성을 밝혀주지 않는가? 창세기 1장만 봐도 “날”이 하루가 아닌 것 같은 문제 말이다. 본문의 의미 가능성이 본문 밖의 가능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은 사실이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어디 그 사람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대 과학적 한계성을 갖고 어떻게 변했다는 것 좀은 쉽게 알 수 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이사파로 여행할 때 거리상으로 한나절 이상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니 그 관계된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의 현대정보가 성경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경 본문의 의미와 현실 또는 과학이 정의하는 의미와 대립이 될 때는 본문에 그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선지자나 사도들도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기 마련이다. 그들도 몇 달이고 계속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여기 엘리야가 40 주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번에 여행하였다(왕상 19:8)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하고 의학적인 척도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특별한 양식으로 음식이 주어졌거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양식으로 역

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도움받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만대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이렇게 주석가가 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개방성을 갖지 않고 자신의 과학적인 이념에 따라 읽는다면 자기 스스로 소경이 되고마는 것이다.

기브온에서의 태양의 정지, 이야론에서의 달의 정지는 현대인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다. 이 천체가 정지했다고하면 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한 방식”(bij Wijze von Spreken)이 그런 것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말함은 본문을 읽을 때에 외부자료들로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떤 그럴듯한 해석도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주석가는 외부자료들에서부터의 한계가 얼마만큼 본문에 허용될 수 있을지 항상 경계하고 과학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눈을 열어놓아야만 한다.

<성경만이라는 말 대신 목적이라는 말로 대체함으로 읽는 것>

세번재의 질병은 성경을 읽을 때 소위 성경의 목적한 바가 무엇이며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을 배우도록해서 하나님께 존귀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구원계획같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이 확실한 목적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때에 다윗과 끌리앗의 이야기의 목적(scope)하는 바는 여호와께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지 거인(巨人)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목적 개념이 본문의 나머지를 짤라내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마침 사람에게 짐작의 고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하여 나머지 팔이나 뼈들을 짤라내는 현상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성격을 들어 성경이 과학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어떤 특별

한 큰 뉴스가 역사서술에 결정적인 자료를 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고대 여행길을 보고한 것이 오늘날 특별한 의학약효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얻는데 도움을 수기도 하는 것이다. 강물 출기를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강물을 출기라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른 것도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끌리앗이 거인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어떤 거인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성경의 원의도가 아니라고 해서 짤라버린다면 그 본문의 원의도 뜻하는 바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본문을 성경 밖의 것과 관련해서 빠뜨려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 목적개념 때문에 두가지 위험이 나타난다. 첫째는 목적 때문에 어떤 자료들 - 언어, 민족사, 역사학 등 -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마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런 과학 학문의 하나에 너무 완전한 기독론적인 모델을 추구한 나머지 본문의 원의도가 잊어버려지고 본문이 세밀한 데에 너무 치중하고 마는 위험이다.

요컨대 주석가는 성경 본문의 목적(scope), 모든 부분들의 기능들을 세심하게 확정해야만 한다. 단지 목적개념이라는 안경만으로 볼진대 오히려 그 눈은 회미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소위 성경목적에만 관심하지, 성경책이 “파자들의 책”이란 것을 보지 않는다.

V. 읽는다는 것은 말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은 달혀진 책은 아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어서 열려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읽는다는 의지가 예비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존귀롭게 읽고 또한 그것을 영접해야만 한다. 성경에 의한 인도를 다른 탐구 영역과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 자연 곧 창조의 책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성령의 인도라하여 언어학, 지질학, 화학이나 생물학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유트레흐트 대학의 표어 곧 “의의 태양이여 우리에게 비치소서”(sol iustitiae illustra nos)가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할 줄 안다. 세상과 성경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찾고 발견해내고 다시 생각하고 종합하고 개관하여 결론지우는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

셔야만 한다. 기도도 아니하는 인간의 활동들에 거룩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위해 기도한다고해서 성경 자체가 달혀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창조세계나 성경에서나 모든 울타리들이 열려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노래할 것을 가르치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 잘못 읽는 것이다. 우리는 신문을 읽음으로 모든 인간의 의침들을 듣는다. 또 성경 읽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것을 듣게 된다. 성령은 말한 것을 가르쳐 준다. 읽을 때 계으렵을 피우는 것이나 주석에 있어서 병이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읽는데서 오는 것이다. 사람은 잘 읽는다 하지만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은 부끄러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하기를 배우는 자는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불러내어 그의 큰 행적들을 전파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읽고 교회 문턱에 들어 오는 자에게 소리를 내어 주어 그리스도안의 큰 비밀이 어여함을 성도들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歴史에 있어서의 進步의 개념

— 進步主義史觀의 이력서 —

<The idea of progress in history>

이상규 교수

(Th. M.)

I. 진보개념의 기원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역사를 순환적 (Cyclic) 인 것으로 이해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살았던 저들은 역사를 자연과 천체운행을 통해 이해 하려했던 것이다.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삶을 영위했던 바, 삶의 환경 속에서 우주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밀폐된 실체이며, 시간이란 하나의 중심을 축으로 하여 동일한 궤도를 순환하는 수레바퀴적인 것으로 이해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들은 역사란 뚜렷한 출발이나 종말이 없이 무한한 계속만이 있는, 의미없는 반복 곧 영원회기적 (永遠回歸的) 인 것으로 이해했다.

이 회기적 이해는 결정론적이며, 모든 우주의 구조는 변화될 수 없는 틀로 짜여져 있어서 창조란 불가능하고 새로운 것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간안에 새로운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역사를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 (詩)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심오하다고 보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였다.

그리이스 철학이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였다. 플라톤도 탐구할만한 가치있는 대상은 자연의 원형이며, 불변적인 것, 영원한 것이지 시간적인 것, 역사적인 것은 무가치하다고 보았다.